

'벤치 멤버' 전략... 시련의 김민재

UCL 8강 1차전 등 최근 5경기 결장... 후보 선수로 밀려 대기 시간 길어지며 인터밀란-마드리드 등 이적설 솔솔

지난 시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 SSC의 우승을 이끌었고 최고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김민재는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8강 1차전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 또 벤치를 지켜야 했다.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토마스 투헬 감독은 끝까지 김민재를 부르지 않았다. 라치오와의 16강 2차전에 이어 다시 한 번 UCL 벤치 대기였다.

유럽 정상급 센터백으로 평가받던 김민재는 최근 소속팀에서 위기에 처했다. 입지가 대단히 좁아졌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해 우파메카

노와 함께 부동의 주전 중앙수비수로 활약했으나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팀에 합류한 토트넘 출신의 에릭 다이어(잉글랜드)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벤치 요원으로 밀려났다. 리그 경기든 물론이고 UCL 경기에도 결장하는 경우가 찾아지고 있다.

리그 26~27라운드에서도 벤치를 지킨 김민재는 직전 경기인 28라운드 하이덴 하임전에 모처럼 선발 출전했지만 팀이 2-0으로 앞서다 2-3 패배의 빌미를 제공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가 5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던 경기였다.

UCL에서는 라치오와의 16강 2차전에 이어 이날 아스널과의 경기에도 결장했다. '통곡의 벽'이라는 철벽수비를 자랑



지난시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최고 수비수로 꼽혔던 김민재가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벤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10일(한국시간) 런던 원정이었던 아스널과의 UCL 8강 2차전에서도 벤치를 지켰다. 연합뉴스

하던 김민재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민재는 튀르키예 리그와 세리에A에서는 주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다. 부동의 중앙수비수였다. 나폴리에서는 리그 최우수 수비수에 선정됐다. 클럽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런데 분데스리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180도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이 그리울 정도다. 김민재가 결장한 가운데 바이에른 뮌

헨은 이날 아스널과 2-2로 비겼다. 전반 12분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에게 실점한 바이에른 뮌헨은 6분 후 세르주 그나브리의 동점 골로 균형을 이뤘다. 전반 32분에는 골잡이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2-1로 앞섰다. 그러나 후반 31분 아스널의 레안드로 트로사르에게 오른발 노스톱 슈팅을 내줘 다시 동점이 됐다.

김민재가 뮌헨 벤치에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다. 인터 밀란, 레알 마드리드 등과 연결됐다. 아직 가능성은 낮지만 김민재 입지가 그만큼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이어의 수비 실수 등으로 2실점 했다. 투헬 감독이 다음주 열린 아스널과의 2차전 홈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줄지 김민재를 기용할지 눈길을 끈다. 두 팀의 2차전은 18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모든 게 조합된다면..." 전제 단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우승 가능할까

'명인 열전'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출전하는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우승을 공언했지만 "모든 것이 조합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우즈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스터스 여섯 번째 우승 도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기권한 뒤 발목 수술을 받은 우즈는 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했다가 고열 증세로 또 기권했다.

우즈는 "발목 통증은 사라졌다"면서도 "발목 이외의 부위가 부담을 짊어줘야 한다"며 예전의 몸 상태를 아님을 인정했다. 그가 우승을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이 조합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이유다.

우즈는 이번 마스터스에서 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 24분 제이슨 데이(호주), 맥스 호마(미국)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매년 우승 후보에 올랐던 우즈지만 부상에 시달리고 48세가 된 그에게 우승이라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 우즈보다는 '24회 연속 컷 통과'라는 기록 도전에 눈길을 가는 것이 현재 우즈의 상황이다.

하지만 우즈는 "마스터스에서는 50대와 60대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고, 40대 후반 선수들이 우승을 경쟁한다"며 "이는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플레이할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 30년 전 내가 처음 경기한 이후 모든 티백스와 그린이 바뀌었다"며 "그러나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각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이정후 두 경기 연속 멀티 히트... 타율 0.255로 '경중'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두 경기 내리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치고 타율을 끌어올렸다.

이정후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를 때렸다.

세 경기 연속 무안타 후 세 경기 연속 안타에 이틀간 안타 4개를 몰아친 이정후는 시즌 타율 0.255(47타수 12안타)를 기록했다. 이정후는 시즌 4번째 멀티 히트를 달성했다.

워싱턴의 우완 투수 호안 아돈에게 3루수 땅볼(1회), 투수 앞 땅볼(3회)에 그친 이정후는 1-3으로 끌려가던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바뀐 왼손 투수 로버트 가르시아의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0일(한국 시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USA투데이·로이터=연합뉴스

스카이텔레비전·연합뉴스

부드럽게 받아쳐 중견수 앞 안타를 쳤다. 이정후가 좌완 투수에게 뽑아낸 4번째 안타다.

이정후가 출루했지만 후속 세 타자가 삼진과 땅볼로 물러나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정후는 3-3 동점을 이룬 6회 2사 3루에서는 유격수 파울 플라리로 잡혀 아쉬움을 남겼다.

9회 1점을 더 쥘 3-5로 밀린 9회 말 선두 타자로 나온 이정후는 워싱턴 우완 강속구 투수 카일 피네건의 높은 속구(시속 156km)를 밀어 유격수 옆을 관통하는 좌전 안타로 마지막 추격의 포문을 열었다. 타구 속도가 시속 150km에 달해 워싱턴 유격수 CJ 에이브럼스가 견어내긴 어려웠다.

윌버 플로레스의 안타, 호르헤 솔레르의 볼넷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무사 만루의 끝내기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마이클 콘포토의 힘없는 투수 앞 땅볼 때 이정후가 홈에서 포스아웃됐고, 맷 채프먼이 유격수 앞 병살타로 찬물을 끼얹어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 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